

광주시교육청, '학업중단속려제 업무담당자 설명회' 성료



상담·체험·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해 속려 기회 부여하는 제도

광주시교육청이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선제적 지원을 위해 6·7·15일 사흘 동안 광주학교 시설지원단 소강당에서 실시된 '학업중단속려제 업무담당자 설명회'를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

학업중단속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게 연 7주 이내(한 학기당 4주 이내)의 기간 동안 상담·체험·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속려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0학년도 학업중단속려제 운영 결과 속려제 참여 학생 총 215명 중 169명이 학업에 복귀해 78%의 복귀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현장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려는 학생들에게 속려제를 권하고, 전문(상담)기관과 협력

해 학생 맞춤형 속려제를 운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시교육청은 ▲2021 학업중단속려제 길라잡이 및 리플렛 제작·보급 ▲학업중단속려제 전문(상담)기관 확대 운영 ▲학업중단예방활동 강화 ▲학교 내 대안교육 운영 및 대안교육위탁기관 운영 ▲Wee센터 및 Wee클래스 운영 등 학교 현장에서 학업중단속려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중 2021 학업중단속려제 길라잡이는 교육부 공동 운영지침,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 학업중단예방위원회 활동, 학업중단속려제 전문(상담)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배포됐

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김형태 과장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지속적인 학업 유지를 위해 선제적·적극적 학업중단에 방사업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속적인 배움을 위해 검정고시 지원,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학생의 학력 인정을 위한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최윤희기자

보성교육지원청,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기간 운영

4.16세월호 참사 온라인기념관 추모글 남기기·추모 묵념 등



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추모기간 운영은 기억·책임·약속이란

주제로 4.16세월호 참사 온라인기념관 추모글 남기기, 추모 묵념, 노란 바람개비 설치, 전자게시판 추모 동영상 탑재, 연합학생회의 단독방 추모댓글 달기, 초등학교 세월호 참사 추모

교육활동 자료 전시 등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오늘 오전 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는 직원들이 각자 추모의 마음을 담은 글을 노란 바람개비에 작성하고 낭독하여 추모 분위기를 더하였다.

또한 별교중앙초등학교에서 실시한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 교육활동 후에 이루어진 시화, 그리고 작품을 교육지원청 로비에 추모기간 동안 전시함으로써 4.16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훈을 되새겨 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재현 체육업무담당 주무관은 "오늘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서 아이들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어른으로써 우리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에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겠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보성=김덕순기자

진도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공모 사업 4년 연속 선정

'그림책으로 행복한 아이 기르기(심화)'과정 운영

진도공공도서관(관장 조정희)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1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 선정되었다.

올해로 4년째 선정된 다문화 프로그램은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지난 12월부터 매주 월요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그림책으로 행복한 아이 기르기(심화)'주제로 25회 과정을 운영한다.

다문화 여성들의 자녀 교육 역량 강화와 국

내 적응 지원 프로그램으로 △그림책 함께 읽기△말놀이와 역할극을 통한 한국어 습득△자녀 발달과정과 특징에 대한 교육△필사, 문집 제작 등 다양한 과정으로 준비되어 있다.

작년에는 진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쿠 지역아동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진흥 사업에 힘쓰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비올라 로



라 클래식 공연'이 7월에 운영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공공도서관(☎061-544-2538)으로 문의 하면 된다.

진도=조성용기자

청암대학교, 'Dream Lounge' 개소식 개최

취·창업 정보검색 및 AI면접실과 Book Cafe 등 복합학습문화공간

청암대학교(총장 서형원)는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 관계자 그리고 동문들과 주요 보직교수, 산업체 관계자, 총학생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학술정보센터 1층에 취·창업 정보검색 및 AI면접실과 Book Cafe 등으로 계획된 복합학습문화공간 기능의 'Dream Lounge'를 오픈하였다.

'Dream Lounge'는 약 2억 3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들여 369㎡의 규모로 지난 2월 말 착공하여 지난 13일 오픈하여 청암대 학생들의 특별한 복합학습문화공간으로 정식 운영된다.

청암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유스런 분위기에서 소통하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함양할 수 있는 창의적 공간을 위한 공간배치와 학생들에게 친숙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카페형으로 설계하였다.

4차산업혁명시대 니즈에 부합하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Book Cafe와 성공취업 전략 정보를 제공하는 Job Cafe가 결합되어 학생들에게 보다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선호하는 청암대학교 캠퍼스의 중심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암대학교 간호학과 한 학생은 "우리가 꿈꾸어 오던 교육환경과 시설이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마주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서형원 총장은 "문화공간 시설이 부족한 청암대 캠퍼스에 'Dream Lounge' 개소에



시앗이 된 1억 여원을 모금해준 청암대 동문들과 교직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산업사회 변화와 혁신시대에 대비하여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협력하고, 창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스마트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어울려 토론, 소통, 학습하며 만남과 휴식의 장으로서 캠퍼스의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암대학교는 지난 2월에 학술정보센터 4층에 2억 2천 6백여만원 자금을 투입하여 최신의 IT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하여 연구학습지원실, 컨퍼런스 룸, 창의학습지원실 등으로 구성된 '학습지원실'을 구축하여 학습지원과 연구, 토론, 휴식공간을 제공했다.

이번에 1층에 'Dream Lounge' 오픈함으로써 학술정보센터는 1층에 복합학습문화공간인 'Dream Lounge', 2층과 3층은 도서관 서가와 서고, 4층은 창의적 학습공간으로 구성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합학습문화서비스공간'을 구축하여, 미래시대가 요구하는 환경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순천=김승호기자

